

에너지관리공단 소식

에너지관리공단  
김균섭 신임이사장 취임



에너지관리공단 신임 이사장에 김균섭(金均燮) 前 HSD엔진 대표이사 사장이 2004년 5월 3일자로 임명됐다.

이번 신임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의 임명은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결과에 따라 이루어졌다.

에너지관리공단 신임 이사장 프로필

- 성명 金均燮 (54세, 경남)
- 학력
- ▶ 1969 2 부산고등학교 졸업
- ▶ 1974 2 서울대학교 항공공학과 졸업
- 주요경력
- ▶ HSD엔진(주) 고문 (03 8- 현재)
- ▶ HSD엔진(주) 대표이사 사장(00 1-03 8)
- ▶ 산업자원부 기획관리실장(99 6-99 12)
- ▶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장(98 9-99 6)
- ▶ 생산기술연구원 기술관리본부장(94.4-94 12)
- ▶ 대통령비서실 산업담당비서실 행정관(89 1-91 1)
- ▶ 특허청 심사1국 원동기계심사담당관(82 5-83 1)
- ▶ 제9회 기술고등고시 합격(73 8)
- 상훈
- ▶ 녹조근정훈장(1980)
- ▶ 제39회 무역의 날 은탑산업훈장(2002)

“Energy Boy”  
전자기기 시장 석권

에너지절약마크제품 5년간 5천 9백만대 보급... 4천 3백억원 절약효과

에너지관리공단은 전력낭비의 주범인 대기전력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1999

년부터 컴퓨터·TV·휴대전화충전기 등 15개 전자제품을 대상으로 대기전력 감소기능이 있는 제품에 “에너지절약마크(일명 Energy Boy)” 표시제도를 실시한 결과, 5년 동안(1999~2003) 5천 9백만대(2003년도 1,811만대, 시장점유율 56%)의 절전형 사무·가전기기를 보급하여 3,891GWh(4,300억원)에 이르는 에너지절약효과를 거두었다고 발표했다.

또한 에너지절약마크제도 운영으로 에너지절약효과 외에도 이산화탄소(CO<sub>2</sub>) 51만톤(t) 감축 효과도 함께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에너지절약마크제도는 “전기흡혈귀(Power Vampire)”라 불리면서 리모콘 신호대기, 타이머 또는 모니터 표시등과 같이 기기 본래의 기능과 무관하게 낭비되는 대기전력을 줄이기 위해서 제조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기초로 대기시간에 절전기능을 채택토록 하는 제도로 현재 15품목 2,973모델이 절전제품으로 등록되어 있다.

5년만에 5천 9백만대에 이르는 절전제품을 보급하고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을 유지하는 등 성공적 성과를 거두게 된 요인으로 에너지관리공단측은 조달청 우선구매·공공기관 사용의무화와 같은 정부의 인센티브 정책이 실효를 거두고 제조업체의 자체시험을 인정하는 선진적인 제도운영과 국내 제조업체들의 향상된 절전기술, 1W 기준 적용과 같은 전세계적인 대기전력 규제 움직임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나타난 결과로 분석했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주요 전자업체들이 자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고려하여 에너지

절약제품 생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유가상승 및 전기료 누진제 등으로 가계의 에너지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 소비자들의 에너지절약마크가 표시된 절전제품에 대한 선호도 상승도 큰 영향을 미쳤다.

에너지관리공단은 향후 국제적인 대기전력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절전기능이 제품 경쟁력 향상에 중요한 기술로 부각됨에 따라, 국제 기준의 흐름을 파악하고 제조업체와 정보를 공유하며 기술향상 방안을 같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2010년까지 전자제품 대기전력을 1W 이하로 달성하려는 장기 국가 프로젝트인 “대기전력 1W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에너지절약마크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며, 금년중 소비자단체, 관련제조업체 등이 공동 참여하여 한국의 대기전력 절감 로드맵 “Standby Korea 2010”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다.

장지, 발산 택지개발지구  
시범단지 건물 에너지효율  
예비인증획득

기존 아파트 대비 30%이상 에너지절감 효과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4월 21일 SH공사(주,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중인 서울 장지,발산 택지개발지구 시범단지(1,648세대)에 대하여 건물에너지효율 2등급 예비인증서를 교부했다. 이번에 건물에너지효율 2등급 예비인증 받은 SH공사 장지,발산지구는

서울시의 「환경친화 주거단지 모델개발」 추진계획의 건물에너지효율 인증제도 활용시책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 이용계획 심의사항을 적극 이행하여 기존 건물에 비해 30~40%의 에너지절약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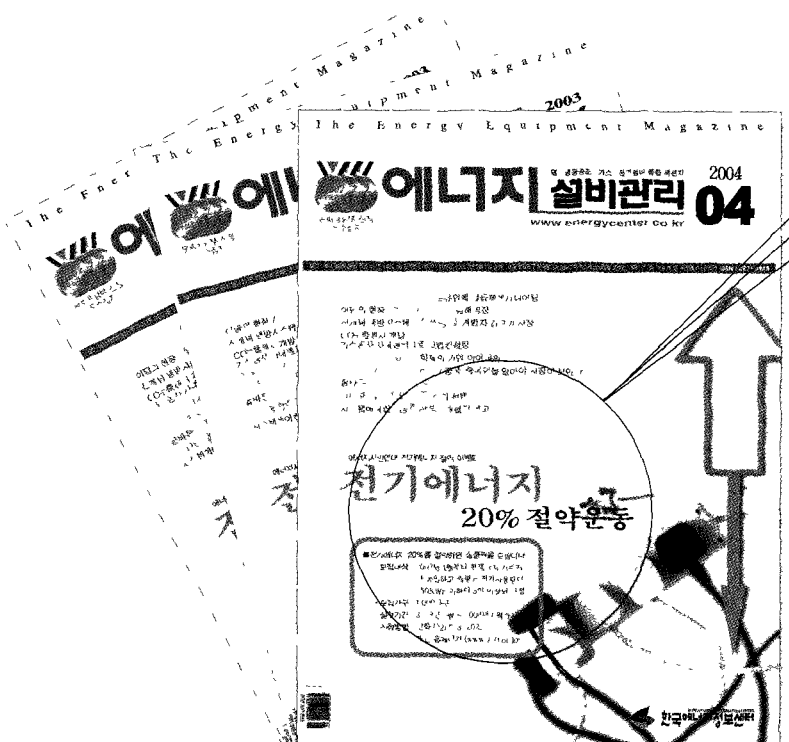
한편 SH공사는 이번에 인증을 받은 장지, 발산지구 외에도 개발면적이 30만㎡ 이상인 강일, 은평 뉴타운지구 시범단지에 대해서도 인증을 획득할 예정이다.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는 원천적으로 에너지가 절약되는 건물의 건축과 보급을 위해 18세대 이상의 신축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일반아파트 보다 40% 이상 에너지절약이 될 경우 1등급을, 30%~40%는 2등급을, 20%~30%는 3등급의 에너지효율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 2001년부터 시행하여 현재까지 10개 단지가 예비인증을 부여받았다.

이렇게 에너지효율을 인증받은 아파트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에너지낭비요소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대한 줄여 관리비를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영위할 수 있어 건물의 가치도 높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국내 에너지의 23%를 소비하는 건물분야의 에너지절약을 통해 고유가와 기후변화협약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건물에너지효율인증제도를 통한 저에너지소비형 아파트의 보급을 늘려나갈 계획이며, 앞으로 단독주택, 업무용빌딩 등으로까지 대상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 월간 에너지설비관리



- 새로운 개념, 새로운 이름
- 섹션잡지 에너지설비관리 탄생!
- 이제 에너지사용설비에 대한 관리문제는 에너지설비관리지 한권으로 해결하십시오.

에너지와 관련된 잡지는 많습니다. 하지만 모두 구독하기에는 비용부담이 큼니다. 시대를 앞서가는 에너지관리자는 에너지설비관리지 한권으로 해결합니다.

정기구독 문의  
T.(02)2679-6464~5

#정기구독료 캐쉬백제도 절찬 시행중#  
정기구독료 3만원 돌려받자!  
에너지설비관리지 구독자로서 다른 정기구독자를 유지해주시면 3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드립니다.

